

‘문화수도 광주’ 오늘 선포

盧대통령 대국민보고회... “시민 모두가 역량·지혜 모아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확정을 알리는 역사적인 대국민보고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2월 ‘문화수도 육성’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뒤, 4년 10개월 만에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대국민보고회를 계기로 그동안 대립과 논란을 겪고 사업 추진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하 주차 설

계 논란 등에서 비롯된 문광부와 지역민의 갈등, 지역 시민단체 및 문화계 간 대립 등 문화중심도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끝내고 문화수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광주시와 시민단체, 주민 등은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문광부에 전달하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십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심지어 집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종합계획이 국민에게 보고된 만큼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를 줄이는 대신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론으로 삼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시민단체들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온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은 “정부의 종합계획이 확정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은 정부에 대한 요구에 힘썼지만 이제 때가, 시민단체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문화수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종합계획은 총 재원을 5조3천억원으로 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비롯 2023년까지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과 문화화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등 4대 역점 추진 전략과 분야별 과제에 대한 추진 주체 및 국비·지방비간 재원분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제88회 전국체전 오늘 팡파르



‘꿈도 함께! 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를 주제로 8일 개막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행사 최종 리허설이 열린 가운데 가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친절·질서로 광주 업그레이드

10만여명 방문...감동 서비스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8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광주체전은 광주에서 열리는 통산 6번째 체전이자, 지난 1993년 제74회 광주체전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8·20·22면>
이번 체전에는 16개 시·도별 임원과 선수단 3만여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체전 사상 가장 많은 15개국 900여명의 해외동포 선수단과 광주시의 해외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일본 센다이시 등 9개국 13개도시 대표단도 참석한다.

체전 사상 최초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국제 스포츠계 국빈급 인사들도 체전 기간 광주를 찾는다. 여기에 체전 응원단이나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무려 10만여명의

외지 손님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체전 성공의 열쇠는 결국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는 이번 체전을 위해 광주시민의 10%를 훨씬 넘는 17만명의 범시민지원단을 꾸렸다. 경기장 내외의 상시 자원봉사자 3천여명 외에도 서포터스 3만명을 따로 구성해 ‘질서·정결·친절’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다.

광주시는 체전 기간동안 범시민지원단과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동참하는 기초질서지킴이 운동을 펼쳐 선진질서도시가 확립된 ‘1등광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한 일과성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와 예술, 맛의 고장, 친절하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날씨

8(月)	9(火)	10(水)	11(木)	12(金)	13(土)	14(日)
흐리고 비 16/20℃	흐리고 비 15/21℃	비 후 맑음 16/24℃	구름 조금 14/23℃	구름 조금 13/22℃	구름 조금 13/22℃	구름 조금 13/23℃

광주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모두가 사소한 ‘잇속’을 잡고, ‘감동’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가 ‘문화수도’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갖는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광주만의 문화·예술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맛의 고장과 인정이 넘치는 깨끗한 문화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데 모든 시민이 나서야 한다.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택시기사, 음식, 숙박업, 자원봉사자 등 현장에서 뛰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손님을 대한다면 이번 체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국적으로 문화

수도로서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모든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일동안 광주에서 머물며 먹고, 자는 10만여명의 손님들을 스쳐가는 지나가는 ‘뜨내기’로 대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으로 대접하는 시민정신이 절실이 요청되고 있다.

위대한 광주시 문화체육정책실장은 “광주시는 각 구청과 함께 체전기간 손님들을 위해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했으나 기초질서와 친절 등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수엑스포 유럽표 총공략

BIE총회 D-50...정부·재계 등 유치 총력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유치위원회, 전남도, 여수시 등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여수박람회 유치위, 정부 각 부처와 전남도·여수시는 8일 2012 엑스포 개최지가 판가름나는 11월 27일의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를 50일 남짓하고 고점표 다지기와 새로운 지지국 확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여수)는,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유치경합 3개국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열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의 지지기반인 유럽 회원국 지지 획득을 승부의 관건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몽구 유치위 명예위원장, 김재철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와 함께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7일부터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체코, 터키 등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파견되는 8개의 박람회 유치단 중 5개 팀을 유럽권에 집중 배치해 해당 권역 회원국의 지지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경제사절단을 비롯한 유치팀

은 방문 국가 고위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여수박람회 유치교섭활동을 벌인다. 또 방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접촉해 투자환경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산업시찰을 벌여 경제협력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세를 늘리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우려할 필요 없는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미리 보는 광주 전국체전 ▶화보 9면 | 총장로 축제 100배 즐기기 ▶14면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
(주)한백 세븐 사시 출시!!
가볍게 주삼식요리 이제 '사시'로!
한백 세븐 사시입니다.
신사발음
대리점모집
HAN BACK SEVEN SASH
062) 367-6788